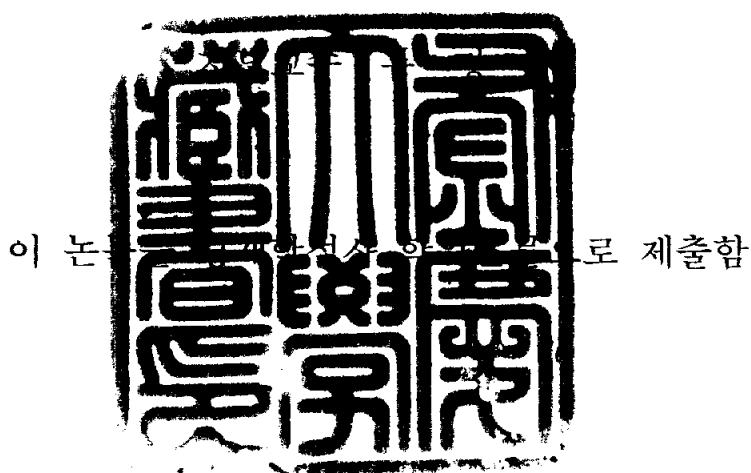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여성가장훈련수료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노동관계전공

손 정 은

손정은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30일

주 심 경영학박사

윤 영 삼



위 원 경제학박사

류 장 수



위 원 경제학박사

서 석 흥



－ 제 목 차 례 －

제1장 머리말	1쪽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쪽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2쪽
제2장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가장 정책의 특성	4쪽
제1절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4쪽
제2절 여성가장 정책의 특성	11쪽
제3장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괄	19쪽
제1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배경과 역할	19쪽
제2절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	22쪽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여성가장취업훈련수료생 중심으로	27쪽
제1절 직업훈련 효과와 만족도 조사	27쪽
제2절 여성가장 취업행태 변화 조사	34쪽
제5장 맺음말	48쪽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8쪽
제2절 주요정책과제	50쪽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52쪽
참고문헌	53쪽
첨부: 전화인터뷰 질문지 원본	55쪽

- 표 차 례 -

<표 1> 성별고용동향-----	5쪽
<표 2> 연령계층별 영성취업자수의 추이-----	8쪽
<표 3> 산업대분류별 남녀 취업자수 및 성비(2001년 9월기준)---	9쪽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비중의 추이: 여성-----	10쪽
<표 5> 실업여성가장의 전직특성 : 종사상 지위별 · 직업별-----	13쪽
<표 6> 실직 여성가장의 연령 · 학력별 구성-----	14쪽
<표 7>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16쪽
<표 8>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실적-----	17쪽
<표 9>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	17쪽
<표 10>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	22쪽
<표 11>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현황-----	24쪽
<표 12>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장 취업훈련 현황----	25쪽
<표 13> 훈련수료후 직업유무 조사-----	28쪽
<표 14> 훈련직종과 관련직업 종사여부-----	30쪽
<표 15>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30쪽
<표 16> 직업훈련의 효용성 여부-----	30쪽

**The Study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Graduates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Household Heads : A Case Study of the Busan Dongnae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Jung-Eun Son

*Major In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outcomes of a survey on the experience and performance of Korean female household heads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as well as policy measures to be improved for female household heads.

The survey is based on telephone interviews with 627 graduate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household heads in Busan Dongnae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on their experiences in the labor market. This survey as well as previous literature enable us to conclude as follows.

First,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household heads in Korea display high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ir social adaptation through economic independence and reemployment. As the number of female household heads in Korea has increased, these programs should be consistently provided for them. Besides the aspect of employment and skill obtainment, another kind of effectiveness of these vocational programs is to encourage female household heads' confidence and networking.

Second, in order to select training agencies and courses, there the following aspects to be considered: 'Is this occupation employable?',

'Does the course include the content of group counselling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trainees', 'Is this course professional enough? Or, is there any next level course for this basic course?', 'Can this agency support trainees' employment and opening their businesses after their graduation?' , 'Does this agency have the facilities or conditions friendly for female household heads?'. Moreover, the training agency should offer not only information on employment and professions, but also emotional service for female household heads, such as human relations training and self-esteem courses, which would enhance the formation of networks and further gatherings of the trainees.

Thir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actively carry out such public welfare projects for women household heads as the Public Work Program and the Social Job Creation Program, and to expand social security net for them. This is because female household heads are likely to have limited access to various employment information and welfare-related policies due to their long-hour work and lack of cultural activities, and thus to become peripheral workers in the labor market.

Especially, female household heads highly request systematic support i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nd "employment", which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ome policy measures for.

제1장 머리말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노동부시행 여성가장취업훈련은 1998년 IMF 시기 긴급과정으로 신설되어 노동부를 시행부처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경력과 기능이 부족하여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중장기, 정규직업 훈련 참가가 어려운 여성가장들에게 특별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장취업훈련은 2003년 현재까지 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초기보다 예산도 증액되고 참가자수도 계획보다 증가하여 실시되고 있다 (노동부, 2002).

국민기초생활보호제가 실시되기전 생활보호제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2%, 46.1%로서 거의 절반정도가 여성가구주인만큼 여성가장은 현실적으로 보호대상자이며 사회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이다(초이수, 2000).

이 중 실직여성가장의 처지는 IMF 구조조정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의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더 배가되었다. 여성가장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취업에의 요구가 긴급하고, 취업자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여성가장취업훈련은 보호위주였던 여성가장정책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¹⁾는 IMF의 상황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아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전 명칭은 '일하는 여성의 집'이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 일하는 여성의 집 주관부처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생계형 직업훈련을 수행하였으며 여성가장취업훈련도 1998년 실시초기부터 실시하여 왔다. 정부도 이 시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97년 17개에서, 98년 34개소, 2000년 46개소, 2001년 53개소로 확대하여 중장년취업훈련을 위한 역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여성부, 2001).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98년부터 여성가장취업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훈련수료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가장 훈련수료생들의 노동시장진입이후 성과가 어떠한 지를 조사하고 이후 여성가장취업훈련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여성가장 훈련생들이 수료 후 취업현장에서의 실태를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취업현장의 살아있는 사례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98년부터 여성가장 취업훈련을 일선에서 담당하면서 여성가장훈련생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던 기관의 실무자가 수료생들의 현장취업현황을 다시 조사해보는 의미있는 기획이기도 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체계

이 논문의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문헌연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998년부터 2001년 4년 동안 노동부시행 여성가장취업훈련을 수료한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양식을 가지고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개별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기간은 2003년 9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실시시간은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 평일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였는데 전체 여성가장취업 수료생 627명중 전화와 주소가 확인되는 142명중에서 50명을 직접 인터뷰하였다. 설문지는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²⁾ 설문지의 주요내용은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조사, 여성가장 취업행태 변화조사, 국가정책 수혜정도조사, IMF가 여성가장취업훈련생에게 미친 영향 조사 등이다.

2) 설문지 원본은 첨부자료 참고

본 논문의 구성체계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다. 논문 순서는 제2장에서는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IMF 전후(1996년~2001년)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고 여성가장 정책의 특성을 여성가장의 특성, 여성가장의 주요 정책과 실시 현황, 여성가장직업훈련실시의 배경을 통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과 역할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여성가장훈련수료생들에 대한 노동시장진입이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여성가장취업훈련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업훈련의 효용도를 알아본다. 그 외 취업과 이직횟수, 상용직 근무횟수, 이직이유, 구직방법, 현재 직업유무와 직종조사를 통해 고용불안의 정도를 조사하고, IMF가 여성가장(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국가정책 수혜경험을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여성가장훈련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제2장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여성가장 정책의 특성

제1절 IMF이후의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³⁾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 48.7%에서 IMF 이후 1998년 47.0%로 하락하다가 2000년 48.3%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1년 48.8%로 IMF 이전의 수준으로 되었다. 남성과 비교해 보면, IMF 직전에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남성보다 컸지만 그 이후 회복되어 증가하는 추세인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하락하였다. <표1>에 의하면 첫째, IMF 시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의 49.5%에서 1998년 47.0%로 크게 하락한 것은 여성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2000년, 2001년에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은 여성의 비정규적으로 재취업의 확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금재호(2002)⁴⁾의 연구도 일자리의 증가 또는 창출

3)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중 조사대상주간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한국노동연구원, 2002).

4) 금재호 (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는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물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쟁력 개선과 동반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환경변화를 전망함으로써 여성 정책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이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여성고용의 질개선에는 실패하였음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여성노동시장

이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은 주로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2002년 현재 임시·일용노동자의 6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또한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IMF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회복세에 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여전히 미달하여 외환위기가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성별 고용동향⁵⁾

(단위: 천명, %)

		경제활동			실업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남성	1980	9,019	76.4	8,462	558	6.2
	1985	9,617	72.3	9,137	480	5.0
	1990	11,030	74.0	10,709	321	2.9
	1995	12,433	76.5	12,153	280	2.3
	1996	12,636	76.1	12,345	291	2.3
	1997	12,772	75.6	12,420	352	2.8
	1998	12,893	75.2	11,910	983	7.6
	1999	12,889	74.4	11,978	911	7.1
	2000	12,950	74.0	12,353	597	4.6
	2001	13,012	73.6	12,467	545	4.2
여성	1980	5,412	42.8	5,222	190	3.5
	1985	5,975	41.9	5,833	141	2.4
	1990	7,509	47.0	7,376	133	1.8
	1995	8,397	48.3	8,256	140	1.7
	1996	8,607	48.7	8,472	135	1.6
	1997	8,891	49.5	8,686	204	2.3
	1998	8,562	47.0	8,084	478	5.6
	1999	8,745	47.4	8,303	442	5.1
	2000	9,000	48.3	8,707	293	3.3
	2001	9,169	48.8	8,895	27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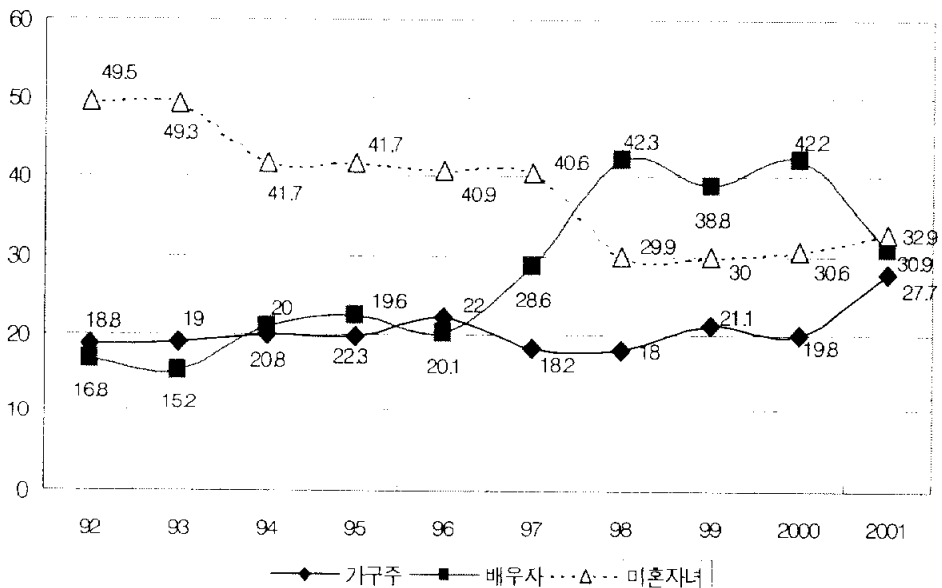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의 환경변화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고학력화와 고령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금의 여성고용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IMF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의 심화에 대한 관점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인용을 여러 부분에서 하였다.

5) 출처는 노동부가 2001년에 발표한 「노동부 기초과제-여성노동시장」

넷째,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여성실업자중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비중은 2001년도 크게 증가하여 27.7%에 이르고 있다. 여성 실업자 중 유배우자의 비중도 IMF 전후로 하여 크게 증가하여 [그림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97년 9월 28.6% 수준에 머물렀던 유배우자 여성실업자의 비중은 1998년 9월에는 42.3%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배우자의 비중은 1999년 9월에는 38.8%를, 2000년 9월에 42.2%를 유지하였으며, 2001년 9월에 들어서야 30.9%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금재호(2002)에 의하면 이는 IMF 시기 맞벌이 여성의 실업을 짐작하게 하며 외환위기가 노동시장 및 가계에 가졌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며 또한 이는 부분적으로 부가노동자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배우자 여성실업자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 안에 실질적인 여성가장의 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가장 실직자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여성 실업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각년 9월 기준



자료: 금재호(2001)

2. 여성취업율의 증가와 변화

첫째, 여성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율도 높다. <표1>에 의하면 1980년도부터 여성 총취업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5년도 여성 총취업자수는 5,833천명에서 1996년 8,472명, 2001년 8,89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IMF 시기인 1998년, 1999년 소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00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1년은 IMF 직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성실업률은 3.0%로 1996년의 1.6%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1996년 48.7%, 2001년 48.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 여성실직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취업자의 연령이 상승하였다. <표 2>에서 1996년의 여성취업자의 비중과 2001년의 여성취업자의 비중을 비교하면 여성 취업자의 전반적인 연령 상승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1996년도의 40세 이상 여성취업자 비중 4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여성 취업자의 절반을 웃도는 51.9%가 40세 이상이며, 30세 미만은 24.8%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40대 여성취업자수가 1996년 21.5%에서 2001년 26.5%로 상승하여 30대 취업자수를 상회하여 여성연령대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되었으며 60대이상 취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대 취업자수를 상회하였다.(금재호, 2001 : p. 15)

<표 2>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수의 추이

(단위: 천명, %)

	15~19	20~24	2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1991	362 (4.8)	1,263 (16.7)	808 (10.7)	1,840 (24.3)	1,515 (20.1)	1,179 (15.6)	599 (7.9)
1992	316 (4.1)	1,270 (16.6)	813 (10.6)	1,930 (25.0)	1,511 (19.7)	1,227 (16.0)	656 (8.6)
1993	279 (3.6)	1,280 (16.5)	854 (11.0)	2,042 (26.2)	1,506 (19.4)	1,161 (15.0)	655 (8.4)
1994	258 (3.2)	1,323 (16.5)	884 (11.0)	2,076 (25.6)	1,567 (19.5)	1,184 (14.7)	721 (8.9)
1995	247 (3.0)	1,309 (15.9)	944 (11.4)	2,103 (25.2)	1,701 (20.6)	1,181 (14.3)	769 (9.3)
1996	240 (2.9)	1,268 (15.0)	1,004 (11.9)	2,138 (25.2)	1,816 (21.5)	1,193 (14.0)	814 (9.5)
1997	231 (2.7)	1,214 (14.0)	1,070 (12.3)	2,115 (24.3)	1,928 (22.2)	1,241 (14.3)	886 (10.1)
1998	189 (2.3)	956 (11.8)	1,007 (12.5)	2,065 (25.6)	1,890 (23.4)	1,150 (14.4)	827 (10.1)
1999	184 (2.2)	955 (11.5)	991 (11.9)	2,063 (24.9)	2,026 (24.4)	1,173 (14.2)	911 (11.0)
2000	199 (2.3)	984 (11.3)	1,036 (11.9)	2,069 (23.8)	2,245 (25.8)	1,203 (13.8)	972 (11.2)
2001	191 (2.1)	1,011 (11.4)	1,003 (11.3)	2,067 (23.2)	2,360 (26.5)	1,238 (13.9)	1,024 (11.5)

주: () 안의 값은 각 연도에서 해당 연령계층이 점유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9.

세제, 여성취업의 하층부화가 심화되었다.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발생하고 이에 40대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 여성취업자수 비중은 여성 전체의 51.9%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근로, 기능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직업계층의 하층부에 위치하게 된다. 취업자의 분포를 <표 3>에서와 같이 산업 대분류별 살펴보면 여성은 도매 및 소매업에 20.3%가 취업하여 가장 많다. 특히 여성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에 전체 여성

근로자의 34.8%가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16.8%, 농림수산업 13.2%, 교육서비스업 7.9% 등의 순이다.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가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농림수산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의 남성 중심 업종에는 남녀 성비(여성/남성)가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표 3> 산업 대분류별 남녀 취업자수 및 성비 (2001년 9월 기준)

(단위: 천명, %)

산업 대분류	남 성	여 성	성비(여성/남성)
A. B. 농림수산업	1,239(9.8)	1,205(13.2)	0.973*
C. 광업	19(0.2)	1(.0)	0.053
D. 제조업	2,675(21.1)	1,536(16.8)	0.574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0.3)	14(0.2)	0.350
F. 건설업	1,519(12.0)	145(1.6)	0.095
G. 도매 및 소매업	2,060(16.3)	1,854(20.3)	0.900*
H. 숙박 및 음식점	609(4.8)	1,320(14.5)	2.167*
I. 운수업	1,046(8.3)	98(1.1)	0.094
J. 통신업	145(1.2)	54(0.6)	0.372
K. 금융 및 보험업	331(2.6)	391(4.3)	1.181*
L. 부동산 및 임대업	286(2.3)	115(1.3)	0.402
M. 사업서비스업	777(6.1)	372(4.1)	0.479
N. 공공행정, 국방 및 행정	487(3.9)	187(2.1)	0.384
O. 교육서비스업	476(3.8)	725(7.9)	1.523*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0(1.0)	337(3.7)	2.592*
Q. 오락, 문화 및 운동	239(1.9)	138(1.5)	0.577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571(4.5)	420(4.6)	0.736*
S. 가사서비스업	9(0.1)	219(2.4)	24.33*
T. 국제 및 외국기관	13(0.1)	2(0.0)	0.154
전 체	12,670(100.0)	9,130(100.0)	0.721

주: () 안은 성별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는 여성 집중 산업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년 9월. 노동부 기초과제, 2001. 재인용

넷째,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시·일용직화가 심화되었다. <표4>의 지위

별 여성의 취업자수 및 비중의 추이에서 살펴보면 1996년 여성임금근로자 비중 59.5%중 상용고 24.2%, 임시고 25.7%, 일용고 9.63%에서 2001년 여성임금근로자비중 61.5%중 상용고 19.7%, 임시고 28.5%, 일용고 13.2%로 여성의 임금근로자수와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여성고용의 임시·일용직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비중의 추이 : 여성

(단위: %)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
1980	60.8	23.3	37.4	39.2	30.9		8.3
1985	51.8	21.3	30.6	48.2	37.2		10.9
1990	43.2	18.7	24.5	56.8	21.4	22.5	12.9
1991	42.5	18.9	23.7	57.5	22.5	23.1	11.8
1992	42.5	19.6	22.9	57.5	23.7	22.9	10.9
1993	42.6	18.8	23.8	57.4	24.8	22.3	10.3
1994	41.5	18.8	22.7	58.5	24.6	23.9	10.0
1995	40.9	19.6	21.3	59.1	25.1	24.1	9.9
1996	40.5	19.9	20.6	59.5	24.2	25.7	9.6
1997	40.2	20.5	19.7	59.8	22.7	27.0	10.1
1998	42.0	19.5	22.5	58.0	19.8	27.8	10.5
1999	40.4	20.0	20.3	59.6	18.2	27.2	14.3
2000	39.2	19.7	19.5	60.8	18.4	28.2	14.2
2001	38.5	20.1	18.4	61.5	19.7	28.5	1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재인용

제2절 여성가장 정책의 특성

1.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특성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특성은 여성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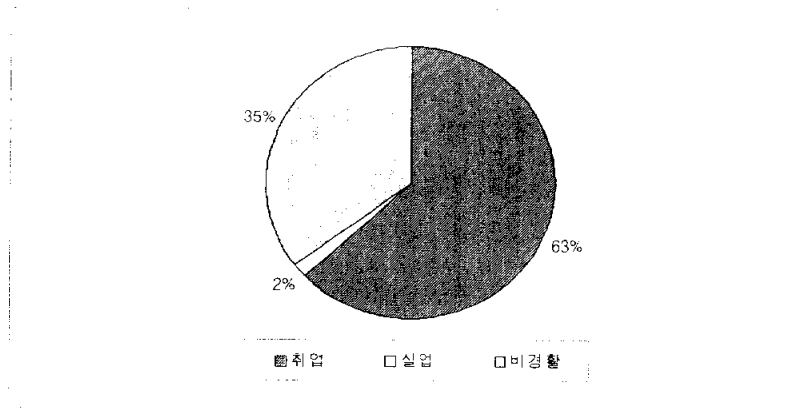
너구나 이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은 상태였고, 그 결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의 고용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전직종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이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이었다. 여성가구는 평균적인 여성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03).

여성가장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은 장지연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부양자가 여성인 경우를 여성가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가장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없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여성가구주라 설명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나타난 여성가구의 규모는 3,400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한 이들 여성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서 나타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현상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4, 50대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고졸 미만의 저학력층이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한다(장지연 외, 2003 : 33).

이 통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첫째, 이 통계는 사별이나 이혼 후 여성가장이 된 법적인 여성가장의 수이므로 실질적인 부양자로서 여성가장의 수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가구주라고 할 때에는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 여성가구의 65%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이 중 63%는 취업한 상태이다. 이는 이 시기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그림 2] 여성가구의 경제활동상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장지연 외(2003) 재인용

<표 5>에 의하면 취업해 있는 여성가구의 종사상 지위는 47.2%가 임시·일용 근로자이고 또 다른 30%는 자영업자여서 이 부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체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비교해 보면 임금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낮은 대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에서 전체 여성취업자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여성가구가 발견된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원과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이 많은데 이것은 여성가구주 실업자의 뚜렷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전체 여성실업자의 분포와 유사한 모습이다.

여성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지만 이전 직업은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이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임시 일용직이었다. 따라서 여성가구는 평균적인 여성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 진입통로가 좁으며 주변부 노동자에 머물거나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실업 여성가장의 전직 특성 : 종사상 지위별 ·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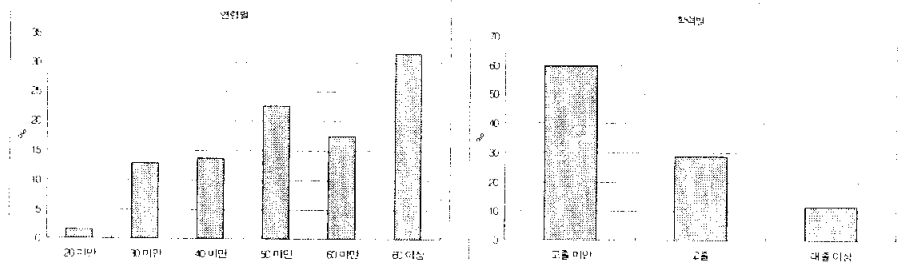
(단위 : 명, %)

		여성가구주 실업자	전체 여성 실업자
종 사 상 지 위	상용 근로자	6,284(11.7)	34,540(13.9)
	임시 근로자	20,460(38.2)	105,949(42.7)
	일용 근로자	20,583(38.4)	82,919(33.4)
	고용주	830(1.5)	2,459(1.0)
	자영업자	5,186(9.7)	15,376(6.2)
	무급가족 종사자	221(0.4)	6,809(2.7)
	전 체	53,565(100)	248,052(100)
직 업 별	입법 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529(8.0)	38,405(14.0)
	전문가	2,233(3.9)	18,202(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8,824(15.5)	56,661(20.7)
	사무직원	16,119(28.3)	58,361(21.3)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9,856(17.3)	42,512(15.5)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45(0.3)	0,901(0.3)
	기능원 및 관리기능근로자	3,397(6.0)	12,683(4.6)
	장치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858(3.3)	8,369(3.1)
	단순 노동직 근로자	9,930(17.5)	37,548(13.7)
	전 체	56,892(100)	273,641(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1년 상반기, 장지연 외(2003) 재인용

[그림 3] 여성가구주의 연령 · 학력 분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서 나타나는 60세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현상을 제외하면 40대-50대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고졸미만의 저학력층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그림 3] 여성가구의 연령·학력 분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장지연 외(2003)에서 재인용

<표 6>에서 실직 여성가장의 연령, 학력별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43%가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이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학력을 교차하여 실직 여성가장을 분류해 보면 50대 중졸 이하, 60대 중졸 이하, 30대 고졸, 40대 고졸미만 여성이 각 나이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그림 3] 여성가구의 연령·학력 분포에서는 20대가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직 여성가장비율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나타나 20대 여성가장의 취업요구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실직 여성가장의 연령·학력별 구성

(단위 :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고졸 미만	236(0.4)	2005(3.4)	2135(3.7)	10131(17.3)	8767(15)	1832(3.1)	25107(43)
고졸	1281(2.2)	8797(15)	8232(14.1)	5119(8.8)	2206(3.8)	0(0)	25636(43.9)
대졸 이상	0(0)	4143(7.1)	2668(4.6)	470(0.8)	417(0.7)	0(0)	7696(13.2)
전 체	15171(2.6)	14946(25.6)	13057(22.3)	15720(26.9)	11387(19.5)	18318(3.1)	58439(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장지연 외(2003)에서 재인용.

2. 여성가장의 주요정책과 실시현황

여성가장에 대한 정책은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IMF 구조조정 이후 직업

과 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입안으로 변경 실시되었다.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 실시 목적과 현황

실직여성가장은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증, 담보 확보곤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을 19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동부산하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 보증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컨설팅전문가로 하여금 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영 등을 지원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2001년 7월에는 점포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월세점포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사업은 2002년 11월까지 2,304가구에 914억원을 지원하여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부, 2002 : pp. 102-103). <표 7>에서 살펴보면 지원액의 규모나 지원 가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의 활용율이 낮아서 예산과 계획이 감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장 자영업지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0-40대 여성가장이 창업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7>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지원액			지원가구(수)		
	계 획	실 적	실 적율(%)	계 획	실 적	실 적율(%)
1999	400	389	97.3	1,000	1,112	111.2
2000	300	250	83.3	730	566	77.5
2001	200	168	84.0	522	407	78.0
2002.11	250	107	42.8	350	219	61.1

자료 : 여성부(2000).

2)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 목적과 현황

노동부에서는 저학력, 저기능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직업훈련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에게 특별취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9년 사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전문학교, 여성회관 등 전국 100개 여성훈련기관을 선정,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식조리, 꽃꽂이, 컴퓨터방문지도교사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중심으로 약 15,000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훈련인원수와 예산이 증가하다가 전반적인 실업률하락과 자활훈련의 실시로 실질적인 훈련대상자가 감소하면서 2001년에는 74억원의 예산으로 3,893명이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868명이 취업하였다. 이 훈련은 훈련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월5만원, 식비 5만원, 재산세 3만원 이하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금 15만원, 가족수당으로 1인당 5만원(3인 한도)이 지급되고 있다(노동부, 2001).

<표 8>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 훈련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예 산		훈 령			취 업	
	계 획	집행액	계 획	훈 령	수료	취업	취업률
1998	4,608	3,865	3,000	3,609	3,27	781	25.0
1999	14,000	13,874	9,000	11,329	9,283	3,743	40.3
2000	9,316	8,713	6,000	6,832	5,624	2,139	38.0
2001	7,419	4901	4,000	3,893	3,048	868	28.5
2002	4,098	2,584	2,500	2,182	1,023	347	33.9

주 : 1)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1998. 9월 실업대책사업으로 처음 시행됨

2) 취업률= 취업자수/ 수료자수

자료 : 여성부(2000).

3)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는 1998년 10월 1일 신설되어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비 확보마저 어려운 여성가장이 보다 쉽게 고용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여성가장실업자를 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월간 월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751사업장 818명에 대하여 803백만을 지원하였다.

<표 9> 여성가장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사업장수	근로자수	지원액
1999	309	373	281
2000	694	787	672
2001	751	818	803
2002. 2	779	853	1,010

자료: 여성부(2000).

노동부에 의하면, 여성가장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취지가 전반적인 정책의 기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전제로 존재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장지연 외, 2003 : p. 91).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말 그대로 여성의 '재고용'이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큰 시기에 노동시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생애근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은 경력단절을 기정사실화하고 재고용을 지원하기보다는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하여 경력의 단절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장들은 높은 취업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고용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균적인 여성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는 한계계층 중에서도 더욱 어려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여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활용도와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데, 특히 임금에 대한 지원을 사업주를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가장근로자들의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고 이들의 취업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3장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관

제1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배경과 역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신인 ‘일하는 여성의 집’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인 민간 여성단체를 운영주체로 1993년 전국 3개 지역(부산, 서울, 광주)에 최초로 설치되어 IMF시기 양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부, 2002 : p. 209). ‘일하는 여성의 집’의 처음 설립목적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1-6개월 정도의 단기 직업능력개발, 취업정보, 취업알선, 근로여성고충상담, 훈련수강생 자녀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운영, 사회교육·문화활동 지원 등 기타 복지증진 사업 등이었다. 특히 IMF시기에는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도 확대되고 여성실업자(특히 여성가장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책목표가 추가되었다. 한편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서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2001년 4월에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사무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고 사무중 일부가 16개 시·도에 기관에 위임되었다. 5월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현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주에 속해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적근거 및 업무체계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민간 여성단체를 사업주체로 하되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4조의 2조는 “여성부장관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

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업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여성부장관은 설립, 운영기준의 설정, 설립지역 및 차등지원을 수행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 결정과 같은 사항 등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의 선정은 재정 부담능력이 있고 여성직업교육 및 훈련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총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대한 YWCA연합회가 운영하는 센터가 25개소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부인회(3개소), 온터두레회(3개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개소), 한국여성의 전화(2개소), 한국소비자연맹, 여성자원금고, 한국여학사협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몬테소리교육협의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여성중앙회, 문화복지협의회, 한국여성인력개발원,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등 16개의 다양한 민간단체가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예산현황은 정부에서 신규설립시 설립건물 임대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7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이며 연간 운영비지원은 1센터당 일괄적으로 2002년 기준하여 9,800만원정도로 이는 1개센터 평균 예산의 30%정도의 비중이다.

현재는 주부부서가 여성부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업무연계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과 활용도를 높일 것을 여성부에서 촉구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0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로부터도 일부가 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다.⁶⁾

6)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 다르다. 2003년 신설되었으며 지원이 되지않는 지방도 있으며 서울시는 3500만원, 부산시는 3000만원이 지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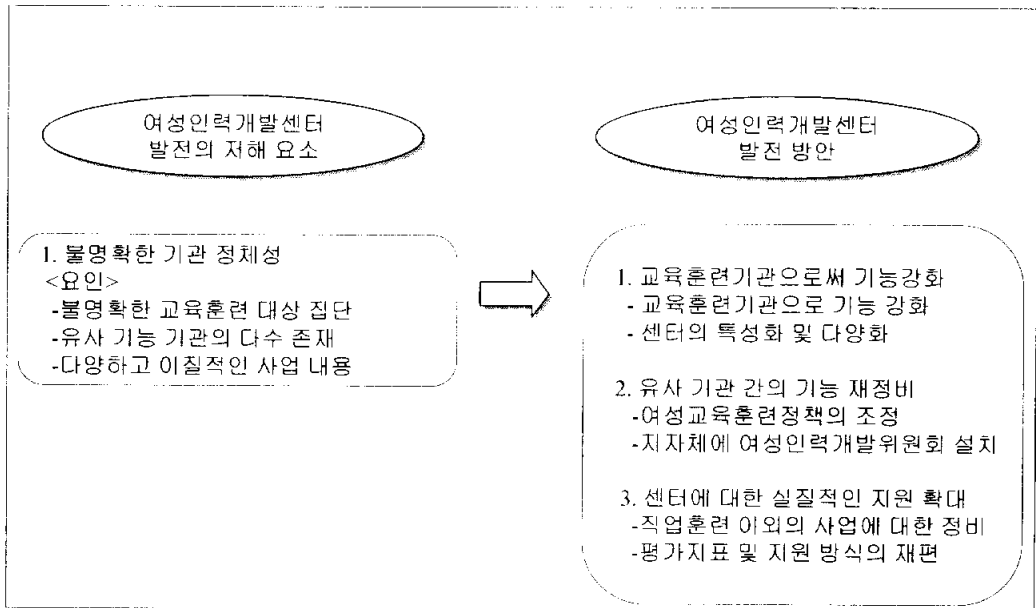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특징은 정부가 여성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한 민관협력모델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적은 예산지원으로 여성단체의 자발적활동과 결합되어 IMF시기 저소득여성실업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노동부에서는 1999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상정립을 위해 한국기술대학교 어수봉외 연구팀에 용역·의뢰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유사기관과의 역할분담, 현재 여성인적자원개발관련 등을 연구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역의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상과 비전을 정립하면서 체계정립 등을 시도하였다.

또한 여성부에서 2003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진단과 중장기 전망에 대해 연구의뢰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과 특징,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결과는 교육훈련기관으로써 정체성의 확보와 관리 및 지원기능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김태홍, 2003). 현재의 활동방향은 지역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되고 질적 수준이 높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수강생에 대한 상담 및 취업정보제공, 관련기능의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 등으로 방향잡아 가고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되어왔던 여성회관과의 업무중복 문제는 2002년 여성회관운영이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점차 여성회관은 사회교육중심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나 지역에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도는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지역의 역할분담 체계안에 고려되어야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0>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의 저해요인과 발전방안



자료 : 김태홍(2003).

제2절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배경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주체단체로 하여 1997년 7월 1일에 부산 동래구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사업, 근로여성 고충상담, 직업상담, 복지후생시설 운영,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체단체가 이 기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립도를 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주적 삶의 실현,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효과로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중앙본부와 부산지부(부산여성회)는 1988년 설립 이후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1995년 여성고용상담센터인 부산<평등의 전화> 주최로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가>에 대한 심포지움을 통해 여성의 직업훈련의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1997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위탁하였다.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성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훈련목표를 여성들이 기능훈련과 함께 자신감 고취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협회(99년 7월 설립), 텔레마케터협회지원(2004년 1월 결성예정) 등의 여성자활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1997년 7월-2002년 직업능력개발 주요사업현황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과정은 양재과정, 텔레마케터, 사부자동화, 엑셀, 의류수선, 머리미용, 독서지도사, 전산회계사무원, 직업상담원,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주방종사원, 아동미술치료 전산회계사무원, 의류수선창업, 머리미용, 컴퓨터교사양성과정, 웹디자인, 컴퓨터활용능력, 머리미용 연구반, 전문종합도우미, 간병인, 산모도우미, 아이돌봄이, 가정관리사, 종합도우미, 요식업종사자, 한글편집, 파워포인트 등이다. IMF시기였던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특징은 <표 11>에서와 같이 여성가장훈련실시인원의 비중이 증가한 점으로 1998년 3과정 62명에서 1999년 6개 과정 254명, 2000년 7개 과정 307명, 2002년 5개 과정 113명이었다.

<표 1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실시현황(1997~2001년)

연도	구분	작종수	참가지수	수료자	취업	과 정 명
1997	일반과정	9	167	113	49	양재와 의류수선, 홈패션, 머리미용, 한복그림그리기, 전문독서지도사, 사무자동화, 여성컴퓨터, 간병인, 산간인
1998	일반과정	17	520		177	기초컴퓨터, 엑셀, 여성컴퓨터, 간병인, 산모도우미, 아이돌봄이, 가사도우미, 양재, 의류수선, 생활한복, 머리미용, 전문독서지도사, 텔레마케터, 애니메이션채색, 애니메이션동화, 회계실무
	여성가장	3	62		34	텔레마케터, 전문종합도우미, 의류수선
	실업자재취직	2	15		이월	머리미용, 의류수선
	계	22	597	545	211	
1999	일반과정	8	254	251	171	사무자동화, 엑셀, 의류수선, 머리미용, 텔레마케터, 독서지도사, 전산회계사무원, 직업상담원,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주방종사원, 아동미술치료
	여성가장	6	254	231	141	텔레마케터, 전문종합도우미, 전문의류수선, 생활한복, 가정봉사원, 전산회계사무원
	실업자재취직	3	34	32	17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사무원, ICT활용능력평가시험
	단기고용촉진	3	103	80	53	산모도우미, 간병인, 가사보조원
	계	20	645	594	382	
2000	일반과정	16	310	217	139	전산회계사무원, 의류수선, 양장, 텔레마케터, 머리미용, 컴퓨터교사양성과정, 머리미용연구반, 전문종합도우미, 아동미술치료, 의류수선창업반, 노인간병인,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요식업종사자, 발반사요법
	여성가장	7	307	248	169	전문텔레마케터, 전문의류수선, 전산회계사무원, 머리미용, 사무자동화, 전문종합도우미, 컴퓨터교사양성과정
	고용촉진	1	10	8	1	양장
	단기고용촉진	4	125	119	76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간병인, 실내환경미화원
	계	28	692	592	385	
2001	일반과정 (유료)	28	694	532	303	전산회계사무원, 의류수선창업, 양장, 텔레마케터, 머리미용, 컴퓨터교사양성과정, 웹디자인, 컴퓨터활용능력, 머리미용연구반, 전문종합도우미, 간병인,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정관리사, 요식업종사자, 한글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여성가장	5	113	97	57	전문텔레마케터, 전문의류수선, 머리미용, 전문종합도우미, 컴퓨터교사양성과정
	고용촉진	1	14	11	7	양장
	단기고용촉진	3	149	99	70	산모도우미, 텔레마케터, 가사도우미, 실내환경미화원
	실업자재취직	2	53	31	18	웹디자인, 전산회계사
	자활, 근로의욕촉진	2	52	39	4	자활훈련,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집난상담프로그램
	계	41	1,075	809	459	

3. 여성가장취업훈련 실시 현황과 목적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가장취업훈련을 1998년 초기부터 위탁 받아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요구조사를 진행하였다. 1998년, 1999년, 2000년은 항상 신청자가 모집정원보다 초과하여 2배수에 이르러 심사를 하여 선별하였다(부산카톨릭간호학과·부산여성회·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 1999). 여성가장훈련이 가장 많았던 2000년도는 7개 직종에 307명이 참가하였으며 취업률은 68%였다.

<표 1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장 취업훈련 현황

연도	직종수	참가자 수	수료자 수	취업자수	* 취업률	실시과정명
총계		736	627	401	평균 63%	총 9개직종
1998	3	62	51	34	66%	텔레마케터, 전문종합도우미, 의류수선
1999	6	254	231	141	61%	텔레마케터, 전문종합도우미, 전문의류수선, 생활한복, 가정봉사원, 전산회계사무원
2000	7	307	248	169	68%	전문텔레마케터, 전문의류수선, 전산회계사무원, 머리미용, 사무자동화, 전문종합도우미, 컴퓨터교사양성과정
2001	5	113	97	57	58%	전문텔레마케터, 전문의류수선, 머리미용, 전문종합도우미, 컴퓨터교사양성과정

주. *취업률=취업자수/수료자수×100

자료: 부산카톨릭간호학과·부산여성회·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1999)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장취업훈련을 실시한 목적은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삶의 의욕고취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훈련 후 바로 취업이 되는 과정선정과 훈련내용에 전문가그룹에 의한 집단상담을 10시간이상 배치하였다.

여성가장관련사업으로는 여성가장직업훈련을 하면서 여성가장의 처지에

와 직업훈련의 효과성, 그리고 새로 개발한 여성가장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된 여성가장의 처지와 정책을 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부산 카톨릭간호학과/부산여성회/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 등 3단체주최로 「새세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9년 여성가장 지원사업활동보고 및 정책제언」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0년의 여성가장직업훈련수료생들이 주축이 되어 2001년 여성가장모임 「참터」⁷⁾가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였다. 정경배(2003)의 연구에서도 준고령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협동조합형태를 제안하고 있었다.

7) 회장 박해숙, 회원수 48명, 연제구 여성한부모 지원센터에 위치.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⁸⁾ : 여성가장

취업훈련수료생 중심으로

이 논문의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중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50건에 대한 인터뷰내용에 대한 결과분석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은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998년부터 2001년 4년 동안 노동부시행 여성가장취업훈련을 수료한 627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양식을 가지고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개별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분석의 필요상 관련문항끼리 묶었다. 주요하게는 제1절에서 직업훈련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제2절에서 여성가장 취업행태 변화조사, IMF가 여성가장취업훈련생에게 미친 영향 조사분석, 실업정책 수혜경험 조사의 순서로 되어있다.

제1절 직업훈련 효과와 만족도 조사

이 절에서는 직업훈련후 취업여부, 취업을 못한 이유, 직업훈련에 대한 효용도 조사분석을 통하여 직업훈련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직업훈련을 마치시고 취업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96%가 직업을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직업훈련 후에도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례는 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장들이 취업에의 필요성과 욕구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취업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2건의 사례는 ‘건강문제로 취업하기가 힘들고

8) 다음에 나오는 설문분석결과의 순서는 원래의 설문지문항 순서와 다르다. 각각의 큰 주제에 따라 문항의 순서를 재구성하였다.

지금도 기초생활보호자이다' 그리고 '장애자인 아들을 돌보느라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는 이유가 있었다.

<표 13> 수료 후 직업유무 조사

직업훈련수료후 취업	사례수	비율(%)
되었다	48	96
안되었다	2	4
총계	50	100

직업훈련 후 직업을 가졌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48명에게 “직업훈련 받은 것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반면에 52%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훈련직종과 관련직업종사여부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업종사경험 유무	사례수	비율(%)
유	23	47
부	25	52
총계	48	100

‘1999년 조사’⁹⁾결과에서는 ‘수료 후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3%, 관련직종 종사자수가 20%이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가 취

9) 조이수·김옥희·성향숙(2000). 「저소득 여성가장의 실태 및 정책과제」. 부산: 부산시. 「저소득 여성가장의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는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에 등록지원되고 있는 모자가정과 노동부에 지원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장,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부산여성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가장 자조집단 참가자를 대상으로 830부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자와 2000년 일부 중복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유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로써 비교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업자의 비율도 높고 관련직종 종사자 비율도 2배 이상 높아 직업훈련의 노동시장성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훈련초기보다 대상자상담, 직종선택, 훈련내용, 훈련생관리가 질이 높아진 결과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은 직종과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이유를 응답하여 모두 31건을 응답하였는데 <표 15>와 같다.

많이 나온 응답순으로 살펴보면 ‘임금부족, ‘나이 제한’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계다급’, ‘일자리부족’, ‘기능 부족’ 순이었다. 그 외 ‘자신감 부족’, ‘본인 건강’,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자녀양육문제’, ‘자녀병간호’, ‘적성에 안맞음’, ‘일이 부끄러워서’, ‘취업의사 없음’은 각 1건씩으로 드러났다. ‘임금부족, ‘나이 제한’이 6건으로 나타난 점은 가정의 생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가장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비가 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직업적 안정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절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여성취업의 문제로서 나이제한의 문제가 여성가장들에게도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자신감 부족, 본인 건강, 일이 부끄러워서, 자녀병간호, 취업의사 없음, 기타 등의 6건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5건은 취업의사가 분명하며 요구가 있으나 사회적, 개인적 조건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문항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이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급해서 취업이 쉽고 돈이 많은 식당에 취업하였다’, ‘40대 후반나이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임금이 적었다’는 사례에서 보는 것같이 비관련직 종사자의 경우 생활조건이 더 열악하며 또한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을 하려 해도 구직활동기간이나 견습기간중의 저임금 등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당장 생계가 다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료당시 36세의 전산회계사무원 수료생의 ‘취업하려고 피눈물나게 했는데도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되었다’며 경리로 하향취업한 사례에서와 같이 직업훈련 관련직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

중 나이제한의 문제가 6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여성들이 겪는 나이제한의 벽이 여성가장의 고용에도 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료당시 36세의 사무자동화수료생은 “취업을 해야겠는데 기능도 적고 나이도 많은 나를 누가 채용하겠는가? 결국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을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표 15>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	
임금 부족 (6)	본인 건강 (1)
나이 제한 (6)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자녀양육문제 (1)
생계 다급 (4)	자녀병 간호 (1)
일자리 부족 (3)	식성에 안맞음 (1)
기능 부족 (3)	일이 부끄러워서 (1)
자신감 부족 (1)	취업의사 없음 (1)
학력제한 (1)	기타 (1)

<표 16>에 의하면 “직업훈련이 회원님의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1%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도움이 안되었다’는 질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에 취업하였거나 한번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였다. 99년 가정봉사원을 수료한 한 조사대상자는 일도 쉽게 찾고 급여도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99년부터 지금까지 모텔 청소직에 종사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례로 보아 당장 생계가 급박한 경우 직업훈련이 좀 더 나은 직업생활에 직결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직업훈련의 효용성여부

직업훈련의 효용성 여부	사례수	비율(%)
도움이 되었다	41	82
도움이 안되었다	9	18
총계	50	100

<표 17>에서 “직업훈련이 회원님의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50명중 4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41명의 조사대상자의 응답사례를 많이 나온 순서로 살펴보았다. 직접적인 직업생활관련이 52%로 이 중 ‘취업(창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능습득’, ‘생활에 유용함’ 이 각 8건, ‘자신감이 높아짐’이 7건, ‘정신적 위안’이 2건이었다. ‘생활에 유용하였다’는 사례 8건 중 컴퓨터관련훈련생의 경우 훈련직종에 취업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컴퓨터를 통해 정보검색 등으로 삶의 활력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3건의 사례는 ‘배워서 즐거웠다’고 하였다. 이는 성장과정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덜 받은 여성이 직업훈련에 대해 성인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교육혜택이란 점에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것으로 직업훈련이 성공적 취업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종합도우미’ 과정수료생인 한 조사대상자는 이때 배운 지식이 양로원에 간병 등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감이 높아졌다’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취업이 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다’, ‘기능을 습득하면서 삶에 대한 자신이 생기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정신적 위로도 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면서 자신감이 높아졌다’ 등이었다. ‘정신적 위로가 되었다’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직업훈련동기들과 계를 하거나 만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는 여성가장 자조모임을 만들어 간부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여성가장의 새로운 네트워크와 자조그룹을 형성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창업)을 하였다’와 ‘기능습득’이라는 실제적으로 직업에 직접연관이 있는 사례만큼이나 자신감, 정신적 위안, 생활에 유용 등이 21건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가장대상직업훈련실시의 의의에 여성가장 실업자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인가의 여부, 여성친화적 시설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며 훈련내용에서 집단상담과 사회성증진을 할 수 있도록 등의 내용이 첨가되

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센터 1999년 조사¹⁰⁾에서도 <직업 훈련을 받은 후 변화된 부분>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전체조사대상자 198명중 45명으로 22.7%의 결과가 나타나 본 논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여성가장들에게는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기능 외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수봉(1999)의 연구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성으로 감성적서비스(emotional service)로써 서비스질의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다.

<표 17> 직업훈련의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조사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	사례수	비율(%)
취업(창업)	12	29
기능습득	8	19.5
생활에 유용함	8	19.5
자신감이 높아짐	7	17
정신적 위안	2	5
기타	2	5
구체내용 없음	2	5
총 계	41	100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건의사항으로 제기한 사례는 <표18>과 같다. 복수응답의 경우도 있으며

10) 이하 ‘1999년 조사’로 표기함.

1999년 3개단체(부산여성회, 부산카톨릭간호대학,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동발표한 「새세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9년 여성가장 지원사업활동보고 및 정책제언」 심포지엄에서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와 지원사업활동보고 및 정책제언’과 ‘여성가장직업훈련과 취업현황 및 정책제언’, ‘여성가장 실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보고 및 정책제언’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1999년 조사’의 기간은 1999년 12월 8일에서 12월 11일 4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를 통한 개별인터뷰방식을 통해 98, 99년 동안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생 중 전화인터뷰가 된 사례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건의사항수는 총 34개로 각 항목의 사례수는 '서비스'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훈련내용'이 8건, '취업'이 6건, '기타' 5건, '강사', '시설'이 각각 2건이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에 대한 건의내용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4건으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훈련 전에 적성검사, 상담 필요'가 2건이었다. 그 외 '좀 더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가 필요', '어린 아기 맡길 곳이 없었다', '훈련기간 짧음', '정보제공' 등이었다. 이는 경력과 기능이 없는 여성가장들에 대한 취업훈련으로 실시하다 보니 취업알선이 가능한 직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지만 진로상담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훈련내용'에 대한 건의내용으로는 '현장중심의 훈련내용'이 3건으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중급과정필요(전문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이는 비록 여성가장들이 경력과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지만 좀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훈련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과정 외에 중급이나 창업과정 등 수준별로 좀 더 다양한 과정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에 대한 건의내용으로는 '공동창업방 마련'이 3건으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훈련직종에 취업하려니 임금이 너무 적음', '업체에 취업연수' 순이었다. 그리고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향상을 위한 특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창업을 위한 계약, 대출 등의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기회에 대한 요구로 판단되며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재교육, 네트워크형성으로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초이수(2000)의 연구에서도 '직업훈련제도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사례순서는 훈련보조금 증대가 25.0%, 중·고급과정 연속개설이 10.4%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와 같이 여성가장들은 자립을 위한 전문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표 18>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건의사항11)

분 류	사 례 수	주 요 내 용
서비스	9	· 좀더 깊이있는 상담과 관리가 필요 · 사진에 적성검사 실시, 상담(2건) ·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4건) · 어린이가 맡길 곳이 없음 · 훈련기간 짧음 · 정보제공 · 훈련생관리
훈련내용	8	· 중급과정 (전문성) · 현장중심의 훈련내용(3건)
취업	6	· 업체에 취업연수 · 공동창업방 마련(3건) · 훈련직종에 취업하려하니 임금이 너무 적음(2건)
강사	2	· 여성가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2건)
시설	2	· 기기고장이 잦음 · 시설공간이 협소
기타	5	· 수료후 신기술 특강 실시(2건) · 홍보를 확대(여성가장들은 정보로부터 멀리 있음) · 훈련시 훈련생들끼리 서로 다툼
총 계	34	

제2절 여성가장의 취업행태 변화 조사

이 절에서는 여성가장의 현재 취업상태와 고용형태, 이직, 상용직경험회수수, 구직방법, 종사직종을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행태를 조사하고 IMF가 미친 영향과 각종실업정책 수혜경험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11) 직업훈련효과와 만족도 조사중 “000회원님께서 받으신 여성가장훈련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대략적인 응답을 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분석에는 넣지 않았다. 그러나 건의사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여 사례를 이 표로 분류하였다. 설문지에서는 7번에 해당하는 문항이었다.

수료 후 취업하였다는 48명의 조사대상자에게 “동래센터 직업훈련수료 후 지금까지 어떤 직장을 가졌고 얼마나 자주 직장이 바뀌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3번에서 5번이직하였다’는 항목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가 직업훈련수료가 현시점으로부터 5년에서 3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평균 1년에 1번 정도 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번 이직’이 8건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이직을 한번도 안 하였다’는 사례는 7건이었다. 이는 여성가장의 경우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직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을 가진 후 지금까지 계속 한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7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19> 직업훈련 수료 후 여성가장들의 취업과 이직횟수

취업과 이직횟수 조사	사례수	비율(%)
10번 이상	3	6
10번-6번	2	4
5번-3번	23	47
2번	8	16
1번	5	10
없음	7	14
총 계	48	100

<표 20>에 의하면 여성가장은 혼자서 가사, 육아, 직업생활을 감당하므로 직업을 구할 때도 따져야 할 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이가 어린 경우 집근처인지, 저녁에 바치는 시간은 어떤가를 고려해야 하고,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 학비부담으로 일이 고된 강도를 가리지 않고 높은 급여를 선호하고,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므로 건강이 안 좋으면 이 조건이 가능한 직업을 찾아야 하고, 또한 급여가 적어도 정규직인 경우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하여 적성과 기능에 맞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 표에 의하면 여성가장들이 안정적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의

자녀의 나이, 지출규모, 자기건강, 직업준비도, 근로시간, 수입, 정규직의 안정적 직장, 적성 등 8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10번 이상’으로 응답한 3건의 사례는 가사,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서비스 관련직과 모텔정소직이었으며 ‘10번-6번’으로 응답한 2건의 사례는 공공근로와 텔레마케터직이었다.

가정관리사,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직종은 개인서비스로 일용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법적제도 밖에 있다. 이 직종은 전국의 대부분의 인력개발센터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연간 300명이상, 전체훈련수료생의 1/4정도의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만큼 그 수요와 공급에서 증가하고 있는 직종으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긴급하다.

텔레마케터직은 이 직종의 근로조건이 정립되지 않아 월급제, 일당제, 성과급제가 혼용되어 있고 근로시간이 다양하며 구인에 비해 구직자가 부족점에 비해서 퇴직금, 사대보험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이 정착되지 않아 이직이 많은 실정이다.

<표 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안정적 직장에 대한 조건으로 생계비보장, 상용직, 가사와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근로시간, 적성 등을 들고 있었다.

<표 20> 안정적 직장에 대한 조건

종사직종	종사이유
텔레마케터	대기업이라 직장도 좋고 급여도 높다
보험모집인	10년이상 계속 다녀서
논술교사	시간이 파트타임이라 가사와 육아의 병행에 좋고 시간에 비해 수입이 많다
보육교사	정규직이라서
식당서빙	계속 일거리가 있어서
의류수선점	건강이 안좋아서 시간조절이 가능함
인터넷학습방	적성과 기능에 맞다

조사대상자중 자영업경험자와 직업을 가지지 않은 5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직업훈련 수료 후 “다니셨던 직장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일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 질문을 ‘정규직에 종사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여성가장들의 비정규직고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더 조사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용직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분석에는 ‘상용직’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복잡하였다. 특히 텔레마케터는 임금체계가 기본급+성과급으로 영업직과 자영업직이 혼재되어 있어 상용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였으나 상용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보험모집인은 자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모텔청소직의 경우도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당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고 1달 이상 근무자는 상용직으로 분류하였다.

복잡하지만 3가지로 상용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분류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상용으로 한다는 것¹²⁾, 둘째는 ‘노동부 용어해설에 의한 상용직 정의로 ‘3달 계속 근무’를 상용직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노동부 용어해설에는 “일용근로자는 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함.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는 자는 제외 함.” “상시근로자(常時勤勞者)는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¹³⁾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근로자에게 ‘4대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를 상용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첫째와 둘째의 분류는 성과급, 일당제, 월급제 등 임금형태나,

12) 상용일용의 구분기준 (여성부, 2001: p.48)

- 상용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일용 : 일일고용되는자 또는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13) www.molab.go.kr

전일제, 파트타임, 임시직, 공공근로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상용직’ 여부를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첫째 분류 즉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분류에 의한 상용직 분석(1달이상 계속근무)과 4대보험 가입여부에 의한 분석 2가지를 표로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다니셨던 직장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일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첫번째 분류기준으로 분석한 <표 21>에 의하면 상용직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수는 전체 45명중 40건, 88%이었으며 ‘한번도 없었다’는 5건으로 11%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무경험”이 가장 많이 나온 횟수는 ‘3회’, ‘2회’가 각각 9건이었으며, ‘4회’, ‘1회’가 각각 8건, ‘5회’, ‘6회’순이었다. 이 표의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근무경험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례의 경우 직종을 살펴보면 호텔청소, 미싱부업 2건, 아르바이트, 가사서비스 등이었다. 식당 서빙직의 경우 1일 5시간근무라 아르바이트로 분류하였다. ‘1개월 이상 근무’라는 낮은 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5건이나 이 상용기준의 열외에 남아 있다는 것은 여성고용의 심각성으로 보아진다.

둘째, 이 표에서 보면 상용횟수가 6회-4회가 14건으로 수료 후 5년에서 3년사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들이 이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상용횟수가 있다는 것인데 상용고용이란 지속적인 근무로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 채 1년이 안되어 옮기면 적응도 힘들고 전문성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즉 상용으로 분류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1달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

상용직 근무 경험 횟수	사례수	비율(%)
6회	2	4
5회	4	9
4회	8	18
3회	9	20
2회	9	20
1회	8	18
없음	5	11
총계	45	100

“다니셨던 직장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일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표 22>에 의하면 상용직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수는 전체에서 총12건으로, 26%이었으며 ‘한번도 없었다’는 33건으로 73%로 나타났다. 상용직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직종은 전산회계사무원, 텔레마케터(4명), 사무직, 보육교사, 사회적 일자리, 자활후견기관소속, 미용강사, 공무원, 노인병동간병인 등이었으며 이 사례에는 고용보험, 산재만 가입한 경우와 의료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회’가 9건, ‘2회’가 2건, ‘3회’가 1건 순이었다.¹⁴⁾ 이 표의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응답자의 1/4이 4대보험 가입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3/4이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체응답자의 3/4가 정부의 근로복지혜택이 안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표의 상용직 중 정규직고용은 전산회계사무원2, 보육교사, 텔레마케터2, 공무원, 사무직원 등 7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상용근로라 하더라도 시간제근무, 성과급제, 1년 미만 임시직(병원간병인)이었다.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1달이상 계속근무 기준 분석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중 상용직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수는 88%

14) 이 통계안에는 의료보험만 가입이 되었다는 사례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된 사례도 포함하였다.

이었으며 ‘한번도 없었다’는 11%로 나타났고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 분석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중 상용직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수는 26%, ‘한번도 없었다’는 73%이었다.

<1달이상 계속근무 기준>분석에서는 상용직 경험자가 88%에 이르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분석에서는 상용직 경험자가 26%로 감소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보험가입정책에도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직 여성가장들은 비정규직고용형태와 고용시장에 머물러 있는 비중이 73%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중 한 미용사는 ‘미용실에서 4대보험은 박준 등 큰 미용실에서 하는데 그런 곳은 젊은 아가씨들만 뽑는다’고 하였다. 이 조사대상자는 훈련당시 34세로 미용을 계속하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공공근로도 하지 않았다’며 작은 미용실도 4대보험이 되어 고용이 안정되었으면 하였다. 그리고 경리로 근무하는 한 조사대상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대상자라 가입을 안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고용속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여성가장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 하겠다.

<표 22>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상용직 근무 경험(4대보험가입자)	사례수	%
3번	1	2
2번	2	4
1번	9	20
없음	33	75
총계	45	101

“직장을 이렇게 바꾸신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이직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인 ‘일거리가 없어서’와 ‘계약기간’을 합치면 조사대상자의 39%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비자발으로 이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 건강의 문제를 들었는데 한 야간 단란주점 찬모로 일하는 조사대상자는 ‘경조사 외는 쉬는 날이 없다’고 하였으며 모텔청소 하시는 조사대상자는 ‘일당제로 하기도 하고 몇 달 계속하기도 하고, 허리가 안 좋아 일하다 아프면 쉬는데 며칠 쉬다가 돈이 아쉬워 또 일하러 간다. 명절때도 일한다. 왜냐면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고 하며 다니고 싶은 직장은 ‘직종이야 아무거나 월급 100만원에 일요일 쉬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여성가장들은 취업현장의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표 23> 이직 이유(2가지 응답)

이직 이유	사례수	%
계약기간	4	7
일거리가 없어서(폐업)	18	32
임금이 적어서	7	12
본인 건강	12	21
자녀문제(양육,병간호, 보육)	6	10
기타	9	16
총계	56	100

“직업을 어떻게 찾으시고 바꾸셨습니까?” 라는 구직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아는 사람 소개’와 ‘본인이 직접 찾아다녀서’라는 비공식적 구인방법이 56%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성가장들이 취업하는 직종이 노동부 등 공공기관에서 구인하기보다는 정보지나 길벽보로 구인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인 이유에 기인한다. 그리고 일부 조사대상자는 노동부나 공신력있는 기관 외는 다단계나 믿을 수 없는 구인처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초이수(2000)의 조사결과에서도 56.3%가 취업알선 기관 외의 방법으로 구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미취업이유에서 ‘자격중이나 기술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여성가장 취업과 고용에서 당장의 생계문제가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표 24> 구직방법조사(중복응답)

구직방법	사례수	%
아는 사람 소개	17	28
여성인력개발센터	15	25
동사무소(공공근로)	5	8
본인이 직접 구직(구인광고, 정보지,신문)	17	28
노동부	2	3
구청	1	1
총계	60	100

“현재 취업상태입니까? 실업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의 68%가 현재 취업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직종에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사무직이 10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당 찬모 등 노무직이 총 8건, 24%로 조사대상자들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에도 식당관련, 청소, 관리사직종 등 노무직 종사율이 높았다. 초이수(2000)의 조사에서도 여성가장이 되면서 단순노무직으로 하향직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나이제한, 재취업의 어려움, 생계비수준의 임금이 필요함 등의 문제로 판단되어 진다. 여기에서도 여성가장의 자립과 생계보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5> 현재 직업유무여부 조사

	현재 직업 유	현재 직업무	총 계
	사례수 (34건)	사례수 (16건)	사례수 (50건)
종사 직종	기능직 (컴퓨터자수공, 승복누비업, 미용사: 총 3명) 노무직 (식당 찬모, 식당설거지, 식당쌈방, 모텔 청소, 환경미화원, 베이비시터, 간병인2: 총 8명) 전문직 (보육교사: 총 1명) 공공근로성격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총 3명) 자영 및 창업 (길거리 노점2, 의류수선점, 인터넷학습방, 보험모집인: 총 5명) 사무직 (논술지도사, 학원강사, 회계사무원, 사무직,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 텔레마케터5: 총 10명) 기타 (사회단체원, 유선비수금원, 고물박스수집: 총 3명)		

<표26>과 같이 현재 취업중인 조사대상자 34명에 대해 “취업형태 혹은 근무형태를 묻은 질문에는 ‘상용직, 전일제’ 항목이 50%로 가장 많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을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제로 하고 있으나 업무상 상용직으로 보았으며 또한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도 상용직으로 분류하였다. 숫자로 보면 반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지나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의 비중이 일정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현재 직업의 근로형태

현재 직업의 근로 형태	사례수	%
자영업(고용인 유)	0	0
자영업(혼자서 함)	5	11
가사노동종사	1	2
취업(상용직, 전일제)	17	50
취업(비정규직)	9	26
부업 등 기타	2	5
총계	34	94

취업상태라고 응답한 34명에 대해 지금 “직장 일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73%가 현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분석 결과는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체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사례 3건과 같이 현 직업에 만족한다기보다는 ‘만족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1999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질문에는 ‘1999년 조사’에서는 “보수가 적어서” 25.6%, “고용의 불안정”이 23.3%로 가장 많았고 본 논문 조사에서도 “보수가 적어서”가 44%로 전체적인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이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가장 큰 애로점임을 알 수 있다.

<표 27> 현재 직업의 만족여부/불만족이유

현재 직업의 만족도	만족		불만족		총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25	%	9		34	
현재 직업의 만족 및 불만족 이유			일이 힘들다 3 보수가 적다 4 기술이 부족 쉬는 날이 적다 (1달2번)			

조사대상자들에게 “IMF 이후 생활과 취업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IMF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성가장취업훈련 참가자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함이다.

별 영향 없다는 11건 외는 83%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가장이 되었다’가 22%로 IMF가 한국의 가정해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52%가 생계가 긴급한 실업자가 되었으며 9%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빚이 늘었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호소되었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조사대상자도 있었다. 현재도 장기실업과 경기부진, 노숙자문제, 생계형 자살이 사회에 주요이슈로 남아있으니 만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만이 아니라 가정, 개인의 삶과 경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아직 그 영향권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대상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별 영향 없다’는 항목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도 이 시기 “힘든 것은 말도 못한다”, “항상 어려웠었다”고 하였다. IMF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본인들이 표현하였으나 이어서 나온 표현으로 너무 상황이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8> IMF가 여성가장에게 미친 영향

IMF가 여성가장에게 미친 영향	사례수	%
별 영향 없다	11	17
여성가장이 됨	14	22
본인실직 (폐업,부도)	6	9
생활이 조달림	6	9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졌다	7	11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됨	14	22
기초생활 보호자가 됨	6	9
총 계	64	100

조사대상자들에게 국가의 다른 고용, 취업, 실업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을 내용을 있는데로 응답 받은 결과 전부 61건이었다. 혜택받은 것이 없다

고 응답한 11명을 제외하면 39명이 평균 1.56건을 혜택받았으며 ‘공공근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훈련, 국민기초생활자순이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37%로 여성가장들에게는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근로는 IMF 시기 긴급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가지 긍정적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했던 무의탁노인 돌보기, 환경, 조정사업 등의 사업을 찾아내어 시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둘째로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오랜 실업상태에서 자활대상 또는 노숙자로, 사회복지대상이 되기 전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다시 기운을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공공근로는 시혜적 복지정책보다 몇 배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더구나 여성가장들과 같은 취약계층은 일자리 부족 속에 공공근로를 통해 임금은 적어도 경험과 새로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항을 질문하면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여성가장 창업지원금, 여성가장 고용장려금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여성가장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계약이나 대출 등의 경험은 대출이나 재산이 있거나 사업(자영)의 경험을 가진 일부 여성들에게 해당되고 일반여성들에게는 경험면에서 거리가 있다.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로서 기업에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여성가장에게는 창업보육실이나 창업을 위한 가이드, 컨설턴트, 창업멘토링 등의 다양한 방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장은 정부의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수집방안, 정신적 여유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 적극적인 복지대상으로써의 지원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여성가장이 가장 절실히 요청하는 정책적 지원은 “자녀양육과 교육관련”과 “일자리확대, 취업지원, 나이제한 문제”이었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지원이 학교학자금일부에 그치지 않고 교육비, 양육비, 문화생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일자리에서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장려금제의 확대와 생계비보장, 실업급여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¹⁵⁾.

<표 29> 국가의 다른 고용, 취업, 실업정책 수혜 여부(중복응답)

국가정책의 수혜경험여부(고용, 취업, 실업 등)	사례수	비율(%)
다른 직업훈련	19	31
공공근로	20	33
국민기초생활보호자	7	11
자활근로	2	3
사회적 일자리	1	2
실업자대출없음	1	2
없음	11	18
총계	61	100

15) 이 조사의 마지막에 ‘자신이 여성부장관이라면... 꼭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조사대상자에게 하였을 때 이 질문의 의도는 ‘설문응답자가 여성가장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것이나 정책적으로 여성가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여성부장관이라면 꼭 하고 싶은 정책은 ‘자녀양육, ‘교육지원, 문화센터 건립, 어린이집 확대, 사교육비 줄이기’ 등 자녀양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일자리확대, 취업지원’, ‘나이제한 줄이기’ 등 취업관련이 15건이었다. ‘1999년 조사’를 살펴보면 ‘생계비보조’가 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비보조’와 아동양육비를 희망하고 있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직업훈련효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직업훈련수료 후 직업유무를 조사하는 질문에서 수료후 96%가 직업을 가졌고 47%가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82%가 어떤 면에서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직업훈련이 여성가장의 직업을 가지고 기능을 익혀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직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자신감 향상, 심리적 위안, 전업기회 탐색 등의 효용성도 있었고 여성가장 스스로 ‘여성가장 자조그룹’을 조직한 사례는 직업훈련의 장이 자주성 회복과 네트워크형성의 계기가 된 점으로 의미있게 평가 할 수 있다.

종사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면서 임금부족, 나이제한 등 전체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여성가장들도 동일하게 호소하고 있었으며 생계가 다급하고 취업이 필요한 여성가장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로는 여성가장에 대한 이해도와 친화력이 있는 질 높은 상담, 전문기능과정개설, 수료 후 취업연수나 창업보육 등 훈련이후 적응과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여성가장의 취업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업훈련 수료후 취업과 이직횟수를 묻는 질문에서 3번에서 5번 이직하였다는 사례가 조사대상자의 47%로 평균 1년에 1번정도 취업과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10%는 6번이상이나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이직의 이유로 39%가 일거리가 없어서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타의적으로 이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이직의 큰 이유로 나타났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조건으로 생계비보장, 상용직, 가사와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근로시간, 직업적성 등을 들고 있었다.

상용직 취업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분류’에는 88%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11%가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보험 가입직장 근무경험’은 조사대상자의 26%가 있다고 하여 73%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보험정책에도 여성가장은 고용형태나 노동시장분포도에서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직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9%가 일거리부족이나 계약기간 완료라는 타의적 조건으로 인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대상자의 56%가 비공식적 구인방법으로 구직하고 있었는데 이 문항에서도 여성가장이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당장의 생계문제와 장기적인 직업안정을 위한 기능습득, 준비, 경력쌓기,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여유의 부족의 문제가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 직업의 근로형태와 만족여부에는 현재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조사대상자의 68%였으며 이중 상용직제 취업(전일제)이 50%, 현직업 만족도는 73%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항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직업에의 요구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영향조사로 “IMF 이후 생활과 취업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별 영향 없다는 11건 외는 83%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가장이 되었다’가 22%로 IMF가 한국의 가정해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52%가 IMF시기에 생계가 긴급한 실업자가 되었으며 9%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장기실업과 경기부진, 노숙자문제, 생계형 자살이 사회에 주요문제로 남아있으니 만큼 IMF는 우

리나라의 경제만이 아니라 가정, 개인의 삶과 경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아직 그 영향권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대상확대와 정책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고용, 취업, 실업정책 수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1.56건의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7%가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로 나타나 여성가장에게 정부의 고용복지정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주요 정책 과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여성가장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행태를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료한 여성가장취업훈련생 627명을 대상으로 수료 후 취업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터뷰설문조사 방식의 사례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론에 의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장직업훈련의 위상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첫째, 여성가장취업훈련은 여성가장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응적 성격으로도 효용성이 높으므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여성가장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훈련기관과 직종선정에서는 ‘취업이 가능한 직종인가?’의 여부, 훈련내용에서는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과정의 전문성과 중급과정 개선’, ‘수료후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여부’, ‘여성가장 친화적 시설이나 조건여부’ 등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선정,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가장취업훈련의 의미가 기능과 자격증만은 물론이고 직업의식, 직업정보, 인간관계훈련, 자신감 향상 등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정서적 서비스와 더불어 네트워크 형성, 후속모임 등의 지원여부에 대해 각 기관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훈련을 거쳐도 나이제한, 고용불안,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계속 존재하므로 현재 3회로 제한된 여성가장직업훈련수혜 제한을 5회 정도로 확대하고 취업실적도 현재의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하는 것을 재직서류 첨부 등의 보완적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정부의 역할은 여성가장에 대한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등 공공복지사업에의 적극적인 인입과 사회복지망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여성가장은 직업생활이 필수적이나 장시간근로와 문화활동의 부족으로 각종 직업정보, 복지관련정책에 접근도가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노동자로 머무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여성가장이 가장 절실히 요청하는 “자녀양육과 교육관련”과 “일자리확대, 취업지원, 나이제한 문제”에 대해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지원이 학교학자금일부에 그치지 않고 교육비, 양육비, 문화생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일자리에서 공공근로뿐만이 아니라 취업, 창업장려금제의 확대와 생계비보장, 실업급여 등 여성가장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3. 여성가장취업훈련 실시가 2003년 올해로 6년째이므로 중간평가를 통해 그간의 직업훈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외 여성가장에 대한 집단상담사례, 창업사례, 제도활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관이 앞서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번 조사연구과정에서 여성가장의 처지는 여성전체가 겪는 애로점 위에 재취업실업자로서 겪는 애로점이 더하고 있으며 그 위에 여성가장으로써 겪는 취업조건 애로점이 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3중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지원없이 스스로 자기문제해결과 자립에의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여성가장모임 ‘참터’

와 같은 여성가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직을 구성한 사례를 보면 ‘여성가장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여 정책, 복지, 문화, 가족구성원에 대한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여성가장에 대해 시혜적 관점보다는 공동체 성원으로 함께 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여성가장훈련생들이 수료 후 취업현장에서의 실태를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취업현장의 살아있는 사례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받은 노동부위탁 여성가장 취업훈련생수료생을 표본으로 하여 지역적, 기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다른 지역의 인력개발센터나 여성가장취업훈련수료생들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재호(2001).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홍(2000). 『여성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1999).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 노동부
-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2003).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과 발전방안』 서울 :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세미나
- 나영선 · 이병준 · 이현정 · 고혜원. 『여성직업훈련현황과 취업유망직종의 개발』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2002). 『여성과 취업』 서울: 노동부
- 노동부(2002). 「기초과제 여성노동시장」 서울 : 노동부
- 안영식(2001). 『부산지역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 방안』 부산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개발센터
- 부산광역시(2003). 『여성정책 사업안내』 부산 : 부산광역시
- 부산카톨릭간호학과 · 부산여성회 · 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1999) 『새세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9년 여성가장 지원사업활동보고 및 정책제언』 부산 : 부산카톨릭간호학과 · 부산여성회 · 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
- 서울YWCA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2003).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10년』 서울: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수봉(1999). 『일하는 여성의집 사업체제 및 운영개선 방안연구』 서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여성부(200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침』 서울 : 여성부.
- 여성부(2002). 『여성백서』 서울: 여성부.
- 오영란(2002). 「여성직업훈련참여자의 취업과정 취업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 임경진(2003). 「비경제활동에서 전환한 기혼여성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주 :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장지연·김정우 (2001).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배(2003). 『준고령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 조순경(2003).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서울 : 노동부
- 초이수·김옥희·성향숙(2000). 『저소득 여성가장의 실태 및 정책과제』 부산 :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 정은경(2001).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청주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한국노동연구원(2002). 『2002 KLI노동통계』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첨부: 전화인터뷰 질문지 원본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효과와 만족도(I)

1. --- (프로그램명) 직업훈련을 마치고 000회원님께서 취업이 되셨습니까(직업을 가지셨습니까)?

1) '예'일 경우

1 1. 직업훈련 받은 것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셨습니까?

1 1-1) (관련된 직종이 아닐 경우) 직업훈련 받은 직종과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2. ---직업훈련이 회원님의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2) '아니오'일 경우

1-3. 취업을 못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대답가능한 예: 나이제한, 학력, 경력, 성차별, 업무능력부족, 자녀문제, 건강, 취업할 생각 없음, 일자리 없음 등.

1-4. 취업을 하지 못하셔서도, --- 직업훈련이 회원님께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대답가능한 예: 기술습득을 통한 자신감 회복,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 연대의식이 생김

여성가장(노동자) 취업행태변화

2. 0000년도 ---- 훈련 프로그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직장을 가지셨고 얼마나 자주 직장이 바뀌셨습니까?

1) 직장이 바뀐 횟수, 취업, 실업상황의 횟수, 실업기간

2) 만약 응답자의 직장 변화, 취/실업 변화가 너무 자주이면 대강의 횟수라도 응답자에게 답을 구할 것. 대강의 실업기간.

3. 다니셨던 직장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일하신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 1) 상용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응답자에게 해 준다.
(전일제, 월급제 등)

4. 직장을 이렇게 바꾸신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예: 계약기간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이 작아서, 자녀문제, 건강문제 등.

5. 직업을 어떻게 찾으시고 바꾸셨습니까?

- 1) 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등.

6. 현재 취업상태이십니까? 실업상태이십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계십니까?)

6-1. 취업상태이시면, 어떤 직종에 일하십니까?

6-2. 취업형태 혹은 근무형태

- 1) 창업 (혼자 자영업자로 일하시는지? 고용인이 있는지?)
2) 월급을 따로 받으시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시는지?
3) 직장에 다니시면 상용직직, 일용직, 전일제, 파트타임제, 임시직으로 일하시는지? (참고: 응답자가 용어를 모르시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줄 것.)

6-3. 취업상태이시면, 지금 직장(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지 않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효과와 만족도(II)

7. 000회원님께서 받으신 여성가장훈련의 만족도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 1) 훈련내용: 불만족, 보통, 만족
- 2) 강사: 불만족, 보통, 만족
- 3) 센터시설: 불만족, 보통, 만족
- 4) 취업알선서비스: 불만족, 보통, 만족
- 5) 센터에 건의하시고 싶으신 사항은 없으신지요?

국가정책 수혜여부

8. 저희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혜택 외에 국가의 다른 고용, 취업, 실업정책의 혜택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 1) 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창업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자활후견기관, 타기관의 다른 직업훈련프로그램 혜택 여부 등.

IMF가 여성가장(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9. IMF이후 000회원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1) 대답가능한 예
 - ① 여성가장이 되었다.
 - ② 남편이 실직을 해서 직장을 내가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2) 참고: 이 문항의 답에서 취업상황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다음2번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유도한다.

10. IMF이후에 000회원님의 취업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1) 대답가능한 예
 - ① 취업을 할 필요가 없다가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 ② 예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 ③ 예전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 ④ 예전에는 직장을 쉽게 구했는데,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마무리 질문

11. 000회원님께서 여성부 장관이라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